



즉시 배포용: 2018 년 1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 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의 20 번째 제안 발표:**  
뉴욕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기후 어젠다

극심하게 오염되고 절정기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피크 타임용(Peaker)” 발전소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탄소 배출량 감축

최소한 800 메가 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개발 및 뉴욕주의 해상풍력 산업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 년과 2019 년에 청원 요청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전력의 송전을 확대하기 위해, 2025 년까지 1,500 메가 와트의  
전제가 없는 에너지 저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2 억 달러 투자

10,000 명의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태양광 발전 시설 생산

기후 변화를 주제로, 연방 정부가 해체한 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재소집

주지사,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이하여 에너지 효율 목표 수립

체택이 될 예정인 모든 석탄 발전소 폐쇄 규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8 년 시정 방침(2018 State of the State)의 20 번째 제안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주를 회원으로 환영함으로써, 뉴욕은 기존의 화석 연료 발전소(fossil fuel power plant)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

기술 등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발표된 전례없는 공약은 시장 개발을 촉진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황폐화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천후의 영향을 줄여서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강하고 복원력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 뉴욕은 첨단 재생 산업 분야에서 21 세기 일자리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기후 어젠다(2018 Clean Energy Jobs and Climate Agenda)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따른 야심에 찬 기후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2030 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으로부터 뉴욕주 전기 수요의 50 퍼센트를 충족하려는 미국을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을 포함하는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정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전진을 토대로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2018 년 청정 에너지 일자리 및 기후 어젠다(2018 Clean Energy Jobs and Climate Agenda)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하게 오염되고 수요가 높은 “피크 타임용(Peaker)” 발전소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탄소 배출량 감축

2013 년에 Cuomo 주지사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을 2020 년까지 50 퍼센트 줄이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9 개 주를 선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은 탄소 배출량 상한이 줄어들면서 필요 이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지역 경제 수익 및 공공 의료 혜택을 위한 지원금 57 억 달러 중 20 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면서 기대치를 초과하여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2017 년 8 월에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다른 주들은 2030 년까지 탄소 배출량 상한의 30 퍼센트 감축을 요구한 Cuomo 주지사의 2017 년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 동의했습니다. 이 활동을 더욱 증진하도록 Cuomo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야심에 찬 기후 오염 감축을 유지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시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실행하는 주들과 잠재적인 신규 파트너인 버지니아주 및 뉴저지주 등과 협력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은 소규모지만 고도로 오염되고 전력 수요가 많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많이 남아있는 용량이 25 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아주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의 절정기 피크 타임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되는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보통

위치하며, 이미 다수의 환경적 부담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층 및 소수계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Cuomo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에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2017년 8월에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이행하는 주들이 발표한 전력 부문 계획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추가로 약 1억 3,300만 톤의 탄소 오염을 피하기 위해 2018년에 이산화탄소의 30 퍼센트 감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수립을 이행한다. 여기에는 함께 그룹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통틀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의 전력량 한계점인 25 메가 와트를 초과하는 피크 타임용 발전 시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 환경 정의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들이 지역별 온실가스 프로그램(RGGI) 경매 수익금을 이용한 투자로부터 공평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17년에 주지사가 소집한 환경 정의 및 정의 실천 실무 그룹(Environmental Justice & Just Transition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 협력한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즉시 줄이기 위해 환경보존부(DEC)에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피크 타임용 발전 시설에서 생성되는 스모그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완적인 개혁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 2020년까지 주립 발전소에서 석탄 사용을 마감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이것이 주지사가 2016년 시정 방침 연설(2016 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Cuomo 주지사는 발전 시설의 폐쇄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발전 시설 정지 완화 기금(Electric Generation Facility Cessation Mitigation Fund)을 만들었습니다.

###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제안 요청

2017년 시정 방침(2017 State of the State)에서, Cuomo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최대의 공약으로 2030년까지 최대 2.4기가 와트의 전기를 해상풍력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을 선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시장으로 뉴욕을 자리매김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Cuomo 주지사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요청하게 되는 2건의 청원을 통해 40만 가구의 뉴욕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800메가 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 시설의 조달을 요청합니다. 이 청원은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 중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offshore wind project)를 건설하기 위해 개발업체들 간에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로 생기는 일자리와 경제 개발 수익이 뉴욕주 전 지역에 누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설계, 관련 인프라 등을 포함한 이 고임금 일자리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훈련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인력 개발 및 인프라 개발 촉진에 1,500 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 및 공급망 활동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또한 가장 유망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해상풍력 발전 시설 항만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도록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및 기타 주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들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 및 산업 투자를 촉진하며 미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본거지로 뉴욕의 지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 **2025년까지 1,500 메가 와트의 전례가 없는 에너지 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전력의 송전 확대**

뉴욕은 향후 10년 동안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업그레이드 공사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을 통해 뉴욕이 소모하는 전력의 더 많은 부분이 생산됨에 따라, 뉴욕은 또한 바람 및 태양과 같이 청정한 자원의 간헐적인 중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저장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뉴욕은 이러한 청정 자원의 혜택을 통합하고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며 뉴욕의 기후 및 청정 에너지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을 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청정 기술 산업의 본거지로 만들도록 2025년까지 1,500 메가 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을 배치하고 3만 명의 뉴욕 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목표의 달성을 통해, 또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비용이 많이 들고 더러우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뉴욕 주민들을 위해 20억 달러 가치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입니다. 뉴욕주가 내세운 1,500 메가 와트 공약은 모든 주를 통틀어 일 인당 가장 큰 전력 생산량에 대한 공약입니다.

최근 서명한 에너지 저장시설 배치 법안(Energy Storage Deployment legislation)을 기반으로, Cuomo 주지사는 유틸리티 조달, 유틸리티 요금 및 에너지 도매 시장의 규제 변화를 촉진하고,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조달 기준에 따라 저장 시설을 통합하며, 규제 장벽을 줄이는 작업들을 통해 저장 시설 프로젝트의 경로를 만들도록 주정부 에너지 기관 및 당국에게 2018년에 함께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저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에서 2억 달러 투자

주지사는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곳에 에너지 저장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장 시설 관련 투자를 위해 최소한 2억 달러의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 지원금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는 허가, 고객 확보, 상호 연결,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저장 시설 배치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저장 시설 시범 프로젝트 및 활동을 통해 최소 6,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조달 및 규정 변경 외에도, 이 투자는 시장 진입과 1,500 메가 와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하고 비용 효과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 10,000 명의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태양광 발전 시설 생산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Cuomo 주지사 에너지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주지사의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전략은 청정 에너지의 경제적, 환경적, 건강상의 혜택이 가장 많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는 에너지 가격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직접 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저가 정책(Energy Affordability Policy)을 발표했으며 2억 6,000만 달러의 총 프로그램 혜택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해에 이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고객이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없는 아파트나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에너지 개혁 비전(REV)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고객들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지역사회의 태양광 발전은 비교적 새로운 반면 널리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고객들이 아직 이 프로그램의 모든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주지사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고객들을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구매력을 활용하고,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000 명의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 전혀 비용을 물리지 않고 청정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해당 전략을 개발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 경제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유틸리티, 지역사회 기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 기후 변화를 주제로 과학 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재소집

2017년 6월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및 기타 의지가 있는 파트너들이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목표를 계속 충족시키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미국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을 구성했습니다.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탈퇴를 발표한 후,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계획하면서 주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과학 정보에 관해 연방 정부에 권고안을 제공하는 주요 과학자 및 이해관계자 그룹인 지속 가능한 국가 기후 평가를 위한 연방 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mmittee for the Sustained 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해산함으로써 또 다른 잘못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지침이 없는 경우, 의사 결정권자는 기후 변화가 단체 및 지역사회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Cuomo 주지사는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재결성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정치적 간섭없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여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아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목표 설정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은 반드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사용을 늘려야 하지만 또 반드시 우리의 전체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일자리에 고용된 11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들과 함께, 이 산업은 이미 뉴욕의 청정 에너지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진전은 주정부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틸리티 프로그램 및 최첨단 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uomo 주지사는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5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을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맨해튼의 업스테이트 농장과 온실, 상업용 건물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뉴욕 주민들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면서 향후 10년간 에너지 비용을 놀랄 정도의 액수인 390억 달러 정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민들이 에너지 효율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금융 및 기술 옵션에 대한 높은 선불 비용 또는 지식 부족으로 인해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업그레이드 공사에 보통 투자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에너지 효율 분야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과 같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 가스 감축 측면에서 같은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높은 뉴욕을 건설하는 일은 더 큰 투자와 에너지 효율 혁신을 끌어 내기 위해 이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 공공 서비스국(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Service)과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에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2018년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아,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initiative)을 제안한다.
- 비용 효과적인 구현 전략과 유틸리티 및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달성된 새로운 2025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정부의 야심에 찬 기후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향한 진전의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 주정부 시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한다.

또한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은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의 이행을 지원하여 가전제품 효율성 기준(appliance efficiency standard)의 제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최근 연방 정부에 의해 버림받은 기능입니다.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의 공동 의장인 뉴욕주는 주정부 수준에서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주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뉴욕주는 미국 전 지역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전제품 효율성 기준(appliance efficiency standard)을 제조업체들이 확실히 지키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